

숲속을 지키는 목인과 석물들 목인박물관 목석원

글 윤혜원 사진 조재은





자연과 돌조각이 주는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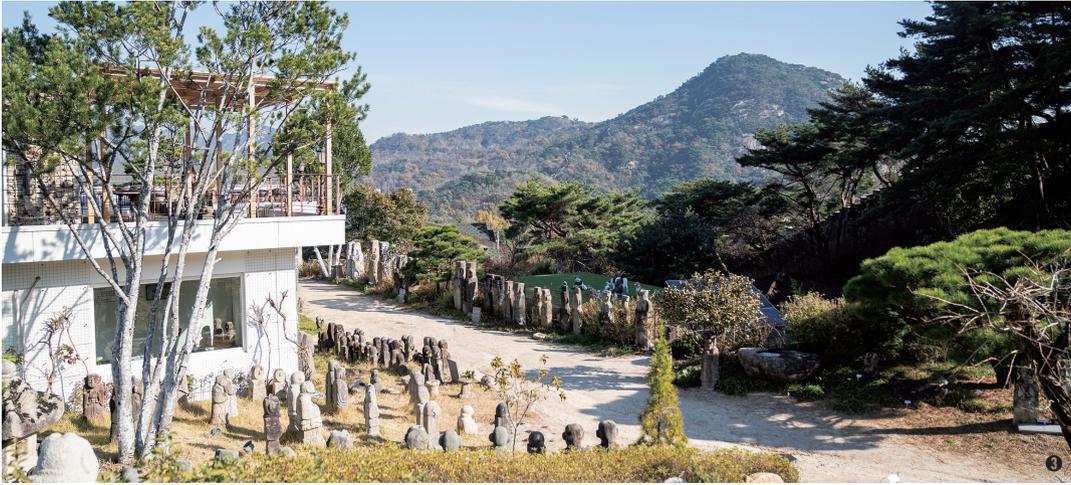
겨울 추위에도 별이 드는 야외전시장은 각종 나무와 풀 덕분에 생기롭다. 그 사이를 빼곡하게 둘러싼 돌조각들은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본래 석물(石物)과 목인(木人)은 무덤에 쓰이던 것이긴 하지만, 액운과 화를 막아주고 행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꺼림칙해 할 필요는 없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수많은 돌조각 사이를 걷다 보니, 해태상이 모인 '해태동산'이 눈에 띈다. 해태 옆에는 '해태 입 안의 돌을 굴러보세요. 행운이 찾아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적혀있다. 실제로 해태는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로, 화재와 재앙을 막는 상서로운 존재로서 궁궐 입구 등에 세워지고는 했다. 완벽한 구 모양의 돌을 굴리니 손안에 행운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다. 해태동산을 지나 정상까지 올라가면 '호랑이 바위'라고 적힌 이정표가 보인다. 막다른 길이라 당황하지 말고 주위를 잘 관찰하다 보면 입 벌린 호랑이를 닮은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돌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이끼가 한층 더 웅망한 느낌을 준다. 인왕산 기슭에서 내려다본 목석원의 풍경은 더욱 장관

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석인들이 각기 다른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돌조각들의 낙원인 이곳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일상에 심표를 찍어보자.

인왕산과 맞닿은 도심 속 쉼터

노란빛 단풍으로 물든 부암동의 골목길. 석파정, 무계원, 자하문 터널을 지나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끝자락인 목인박물관 목석원에 다다른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탓에 숨이 가빠지지만, 높은 가을하늘과 인왕산·북한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목인박물관 목석원은 2006년 서울 인사동에 개관했던 목인박물관이 2019년 부암동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문을 연 곳이다. 총 6개의 실내전시장과 7,000㎡(약 3,000평)에 달하는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웅장함을 자랑한다. 특히나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아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문인석과 무인석, 동자석 300여 점이 눈길을 끈다. 모두 민속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익광 관장이 40여 년 동안 모은 방대한 컬렉션들로, 목석원 곳곳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삶의 철학이 깃든 공간

목석원의 야외 전시장의 유물들은 모두가 만져보고 쓸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실제로 곳곳에 ‘돌다리 건너보세요’, ‘누워보세요’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적힌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크닉하우스’, ‘너와집’, ‘멍 때리는 타’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도심 속 심터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관람객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민속품 하나하나의 특색과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손끝으로 만져보며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목민관의 입구인 하안집 한쪽 벽에는 김의광 관장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들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의 것을 널

리 알리기 위해 인왕산 아래 낡은 주택들을 사들여 지금의 목석원으로 확장할 정도로 민속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박물관 사정으로 인해 목민창고 관람은 하지 못했지만, 김의광 관장의 철학을 알고 나니 이곳의 전시품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빌딩 숲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목민박물관 목석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

- ① 관람객을 맞아주는 석물들
- ② 하안집_매표소
- ③ 동산에서 바라본 전경
- ④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너와집
- ⑤ 다양한 화판이 전시된 세미나룸